

[박물관의 도시]

# 길림철도박물관, 백년철도·홍색정신 이어가다



최근, 길림철도직업기술대학 캠퍼스에 위치한 길림철도박물관에서 흰 사쓰를 입은 대학생들이 전시장에 있는 '아시아호' 특급 열차 모델 앞에 모였다.

누렇게 변색된 철도 도구와 녹슨 레루를 바라보며 지능제조학과 신입생 정병지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건 단순한 전시품이 아니라 국가의 역사가 새겨진 '시간의 팽람'이예요!"

이날 학교측은 신입생들을 박물관으로 안내해 철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개학 첫 수업'을 진행했다.

2018년 개관한 길림철도박물관은 3,000평방미터 규모로 길림철도직업기술대학 캠퍼스에 위치해있다. 중국 철도과학보급교육기지지자 길림성에 국주의교양기지로 지정된 이곳은 중동철도, 민국철도, 남만철도, 인민철

도 등 4개 전시구로 나뉘어있는데 현재까지 4만여명 관람객이 다녀갔다.

"1926년에 제작된 이 레루는 중동철도의 건설 역사일 뿐만 아니라 동북 인민들의 고난과 투쟁의 상징이예요."

박물관 해설원 장신란이 중동철도 전시관에서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로일전쟁시기의 철도지도, 중동철도회사 운영 문서 등이 전시되어 있는 가운데 전시관은 과거 열강들이 철도를 통해 동북지역의 자원을 착취한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었다.

민국철도전시관에는 봉해철도, 길해철도의 로선도와 길림지역 모형이 전시되어 중국인들이 자주적으로 철도를 건설하며 침략에 맞선 역사를 조용히 전한다.

"항기투쟁은 길해철도의 출발점이에요. 이 철도는 완전히 중국인들이

직접 건설한 것이죠. 침략자들에게 '중국인의 길은 중국인이 간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장신란의 해설을 들으며 학생들은 주먹을 짝 쥐었다.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은 남만철도전시관의 '홍등기'(红灯记) 재현 장면이었다. 어두운 조영 아래 철도노동자 작업복과 신호등, 항일련군의 사적이 전시되어있고 양정우, 위증민 등 열사들의 이야기가 철도노동자들이 비밀리에 물자를 수송하며 항전을 지원했던 사실과 함께 전쟁시기의 희생과 애국심을 전하고 있었다.

도시철도학과 학생 왕수안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예전에 교과서에서 '홍등기'를 읽을 때만 해도 먼 얘기 같았는데 지금 이곳에 있으니 철도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정보를 전달하

던 모습이 눈앞에 선하네요."

인민철도전시관은 과거의 무거운 역사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열정이 느껴졌다. 부흥호 고속철 모형이 전시된 가운데 옆에는 현대화된 철도망을 보여주는 모형이 놓여있었다. 이는 해방전쟁시기의 철도 도구와 항미원조시기의 군수물자 운송 문서와 대비되며 '증기기관차에서 고속철까지 중국 철도가 100년 만에 추격자에서 선두자로 거듭난 과정'을 보여주었다.

장신란은 "이 박물관은 학교의 철도 특성화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역사와 현실의 교차점에서 '교통강국, 철도선행'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전시품은 시대의 흔적이예요. 이번 관람은 단순한 견학이 아닌 역사와의 대화였어요." 철도차량학과 학생 단상이는 관람후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그는 "옛 기차표와 기관차 모형을 통해 동북 철도의 발전 과정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강국을 이룩하기 위해 희생된 수많은 이들의 로고를 느꼈다."고 말했다. "길림철도대학 학생으로서 전문 지식을 갈고닦아 미래 중국 철도 발전에 기여할 거예요."

정병지는 부흥호 모형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중동철도 시절의 수모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중국 고속철도로 성장한 과정이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에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 지능제조 분야에서 철도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어요."

현재 길림철도박물관은 길림철도직업기술대학의 '특색교육 현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신입생 첫 수업, 철도 홍색이야기 대회, 과학기술보급 행사 등이 정기적으로 열린다.

해설원 장의동은 "학생들이 책 속 글을 생생한 역사 체험으로 바꾸고 백년 철도의 변천을 통해 국가에 대한 사랑과 민족적 사명감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길림일보



북화대학 '가서홍보단' 길림조중서 항일영웅의 혼 전하다

최근, 길림시조선족중학교에서 '한장의 가서(家书), 백년의 길림'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이 열려 학교 사생들의 마음을 울렸다.

북화대학 외국어학원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생 신소가 이번 강연의 강사로 나서 편지 속에 담긴 영웅들의 정신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최근, 길림시조선족중학교에서 '한장의 가서(家书), 백년의 길림'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이 열려 학교 사생들의 마음을 울렸다.

북화대학 외국어학원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생 신소가 이번 강연의 강사로 나서 편지 속에 담긴 영웅들의 정신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최근, 길림시조선족중학교에서 '한장의 가서(家书), 백년의 길림'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이 열려 학교 사생들의 마음을 울렸다.

북화대학 외국어학원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생 신소가 이번 강연의 강사로 나서 편지 속에 담긴 영웅들의 정신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 차영국기자

## 길림시, 올겨울 첫 대규모 강설... 밤샘 작업으로 소통 유지

11월 1일 밤, 길림지역에 올겨울 첫 대규모 큰 눈이 내렸다. 길림-교하, 심양-길림 등 철도 로선에 눈이 쌓였으며 일부 구간은 결빙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길림철도국은 즉시 비상계획을 가동하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철야 제설작업을 벌이며 철도 운행 안전과 소통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길림철도차무단은 '내리는 즉시 제설한다'는 원칙 아래 선로와 전철기 등 주요 지점을 지속적으로 청소했다. 길림역에서는 직원들이 밤새도록 승강장과 출입구 통로의 눈을 치우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으며 보온 카텐을 추가 설치했다. 또

한 핵심구역에 안내요원을 증원해 실시간으로 승객들에게 안전을 당부했다.

철도부문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길림역의 고속철도와 일반열차는 모두 정시에 운행되고 역대 질서도 잘 유지되었다.

길림역당위 리친 부서기는 "제설 현장에서 모든 직원이 철저히 순찰을 강화해 물고임이나 결빙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했다."며 "승강장과 개찰구 등 주요 구역에 직원을 증원하고 방송 안내, 수동 안내 등을 통해 승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 길림일보

## 장백산문화연구회 현천령공원에 연구학습기지 설립



11월 1일 오전, 길림성장백산문화연구회 연구학습기지 설립식이 길림시 현천령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연구학습기지는 대중을 위한 문화 전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한다. 기지는 정기적으로 장백산 문화 주제강연,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만족서예작품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펼쳐 장백산 문화의 대중화 및 연구 발전을 촉진할 예정이다.

장백산은 청조의 발상지로 유명하며 '성스러운 산'으로 불린다. 장백산 문화는 어업, 목축, 농경 등 다양한 물질문명과 순박하고 강인한 정신적 특성, 사만 신앙, 항일련군 문화, 독특한 자연 및 인문 경관이 어

우러져서 연구와 개발 가치가 매우 크다.

길림성장백산문화연구회는 2001년 설립후 활발한 학술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왔다. 집안 운봉저수지에 서 고분군과 고성을 발견하고 《해설사전》의 '고구려' 항목 수정을 이끌었으며 《동북사지》잡지를 창간하고 《장백산문화론총》 등 중요한 문헌을 출판했다.

2008년에는 연구회 핵심 멤버들이 류건봉의 장백산 답사 경로를 재현해 역사의 맥을 이어가기도 했다. 최근에는 장백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장백산 문화 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길림일보

## 정대병원, 길림시 200여명 조선족에게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

2025년 정기 건강검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가 11월 1일 밝혔다. 정대병원 전문의료진의 철저하고 세심한 검진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협회 200여명 회원이 참여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날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는 정대병원 김수 원장을 협회 활동실로 초청해 '로년기 건강관리 핵심 포인트'를 주제로 특별 강좌를 개최했다.

강좌에서는 고혈압 합병증 예방법, 여성 노실금 관리방안, 남성 전립선 건강관리, 퇴행성 관절염 통증 완화법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유용한

건강 정보가 소개되었다.

이어서 진행된 무료 건강검진에서는 심전도 검사, 혈압 측정, 맞춤형 약물 복용 지도 등이 이뤄져 참석자들로부터 '실속 있는 행사'라는 호평을 받았다.

협회 황정애 부회장은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모든 회원들에

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건강카드를 작성해 추후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 문창호특약기자, 차영국기자

## 서란, 과학적 관리로 량식 생산량 '11년 연속 증산' 전망

최근 서란시농업농촌국에 따르면 전 시 215.5만무의 농작물 가을걷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곡물 생산량이 '연속 11년 증산'을 이룰 전망이다.

이이다.

이번 가을 수확 작업의 효율적인 진행은 농기계 자원과 과학적 관리의 든든한 뒷받침 덕분이다. 서란시는 16

만대의 농기계 장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이른아침과 늦은 저녁 시간대 농기계 '꼬리등 점등'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농업기술 인력들이 현장에 직접 내려가 경작지 보호, 토양 검사 기반 시비 등 기술지도도 진행했으며 17회의 교육을 개최해 농가의 실제 문제 100여건을 해결했다. 더불어 87.5만무의 밭에 드른 작업을 실시해 병해충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생산 안정화와 소득 증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손실 감소는 증산과 같다'는 원칙 아래 서란시농업기계관리총국은 수확기계의 현장 손실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작업 품질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곡물 기계수확 단계의 손실 감소와 효율 증대를 도모했다. 기술진은 농기계 조종사들의 운영기술과 표준작업 수준을 높여 주요 3대 곡물의 기계수확 손실률을 추가로 낮추도록 유도했다.

현재 전 시 여러 향진 및 농업 관련 가두는 매년 풍작을 위한 토양 정리 및 토양 환원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중이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농업 정책과 기술 지원으로 서란시는 지속적인 량식 생산 성장을 이어가며 국가 식량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 길림일보

